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43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유승민 체육회장 최측근’ 전 탁구협 사무처장, 경찰 압수수색

한겨레 김창금 기자

02

스포츠 인권요? ‘투폴스’라는 사람이 있네요

더팩트 유병철 기자

03

재정난에 멈춘 체육·문화시설'..'탈세종' 못막는 세종

TBC 전유진 기자

04

2025 학교체육 대상 시상식...교육 현장 교사 격려

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05

체육학 연구비 1%의 뒷, K-스포츠 과학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급하다

조선일보 최관용 한국체육학회장

조직위원회 출범식



01

‘유승민 체육회장 최측근’ 전 탁구협 사무처장, 경찰 압수수색

한겨레 김창금 기자

2025-11-20 18:57

사진=강릉시청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최측근인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이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처장은 논란의 탁구협회 후원금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다. 그는 올해 초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강릉마스터즈대회 사무총장직에서도 물러났다.

20일 탁구계와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 등을 취재한 결과, 정 처장의 강릉마스터즈대회 조직위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강릉마스터즈대회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정해천 전 탁구협회 사무처장은 유승민 회장의 최측근이다. 2019년 유승민 회장이 탁구협회장에 취임할 때부터 협회 살림을 총괄하며 유 회장을 보좌했다.

하지만 그가 탁구협회 사무처장으로 재임하면서 주도적으로 도입한 후원금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 4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의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받았다. 후원금 유치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정 전 처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임원들의 인센티브 수령액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협회에 권고했다.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월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유 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지만, 이후 시민단체가 유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가장 많은 후원금을 유치한 유승민 회장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지만, 도움을 주었다는 유 회장의 지인이 2억원을 챙긴 것을 두고 차명 수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유회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오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유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하고 있다.

스포츠 인권요? ‘투폴스’라는 사람이 있네요

더팩트 유병철 기자

2025.11.21. 오전 5:24

사진=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시쳇말로 빵 터졌습니다. 2025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현수(47)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한 후, 그와 가까운 정용철 교수(서강대,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에게 짧은 인물평을 요청했습니다. 거의 노트타임으로 나온 답이 ‘투폴스’였습니다. 투사가 된 폴폴이 스머프. 스포츠 인권에 대해서는 타협을 모르는 그의 진지함, 마냥 순수해 보이는 큰 눈망울과 잘생긴 외모, 그리고 그의 경력까지 모두 담은 절묘한 표현이었으니까요. 이번 주 '스포츠렉시오'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체육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김현수 위원장을 다룹니다. 바로 ‘스포츠와 인권’ 이야기입니다.

지난 11월 8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요지는 ‘우연히 밤 12시 분당의 한 학원가 풍경을 봤는데, 일반학생이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학생선수가 하루에 특정시간 이상 운동하는 것은 학대인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복수의 미디어가 이를 보도했고, SNS 상의 공감지수도 높아보였습니다. 유 회장이 저격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현수 위원장일 겁니다. 이것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학생선수는 밤 12시부터 새벽 1시든 개인훈련을 얼마든지 해도 되지요. 왜? 자발적인 활동이니까요. 문제는 지도자가 진행하는 즉, 개인의 선택권이 배제된 훈련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장은 유승민 회장의 주장을 케케묵은 선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의 글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무력화하려는 사람들의 오래된 논리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반복입니다. (유 회장이 언급한) IOC사례도 디지털 환경으로 인한 운동부족 문제에서 나온 것이죠. IOC, 유니세프 등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스포츠로 인한 아동학대와 조기소진에 대해 엄격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 대한체육회장이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논리가 명쾌하고, 발언수위는 아주 높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요? 그는 원래 체육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중고교 및 학부까지 놀 건 미리 다 놀아본 까닭인지 대학원 시절부터는 공부하는 게 재미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논문 쓰는 게 즐거움이었죠. 자랑 하나 하자면, 석사 3학기 때 등재지에 논문을 처음 게재했는데, 이후 40편 가까이 되는 논문심사에서 한 번도 탈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른 나이에 한국체육철학회의 학술이사를 맡았고, 몇몇 논문이 검색사이트에서 상위 5% 이내로 표기될 때 아주 뿌듯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는 29세에 대학강의를 시작했고, 34세에 전임교수가 됐을 정도로 전도가 유망한 젊은 학자였습니다.

스포츠 인권 전문가로의 변신은 2019년 2월이었습니다. 2018년 체육계 미투 열풍이 불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아 조사단장으로 임명됐고, 3년을 활동했습니다. "체육계 인권 문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조사단 전체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죠. 2020년 고 최속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까닭에 더욱 그렇습니다." 꿏고맷음이 분명한 그는 '단장'으로 '어공'이 되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인권에 확실한 소신을 지녔고, 인생을 건 것이죠.

이 대목에서 꼭 집어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조사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 같지 않다는 질문이죠. 2025년만 해도 중학교 씨름선수 삽자루 폭행사건, 철인3종 성폭력 은폐사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 칼부림 사건, 피겨스케이팅 아동학대, 링 위에서 뇌사상태에 빠진 중학생 복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의 불법 해임 등 끔찍한 체육계 인권침해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정부나 체육단체가 반사적으로 내놓는 대책들은 근 20년 이내에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체육계 인권문제는 구조적으로 50년이 넘었고, 개선 노력 후에도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실효성' 부족이죠. 정책이 있고, 규정이 있고, 법도 있고, 이제는 예산과 인력이 있는 스포츠윤리센터(2020년 8월 출범)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결책을 말하기 이전에 정부나 체육단체의 관계자들이 진정성 있는 실천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 체육시민연대의 가장 큰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2022년 인권위에서 임기를 마친 후 그는 1년을 온전히 쉬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강의, 인권 특강, 칼럼 연재, 관련기관 자문, 인권강사 양성, 저술 등 스포츠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는데 2024년 체육시민연대의 집행위원장 제의를 받고 수락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체육계 최초의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2002년 설립)라면 할 일이 있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거 집행위원장님들은 대부분 교수 출신이라 체육계의 구조적 부조리를 포착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저는 교수 출신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관리자 경험이 있어 직접적으로 국회, 언론, 관련 부처와 협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올해 체육시민연대가 ‘역대급’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 집행위원장은 향후 활동이 더 기대되는 체육계 인사입니다. 그런데 교수직을 내려놓았던 까닭에 먹고사는 문제가 우려됐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에 열중하면 집에서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하하 가족을 굶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잠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갈굼’을 당해도 당연하죠(웃음). 사업 수완이 좋은 아내 덕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집에서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픈 일에 전념 할 수 있으니 저야 좋습니다."

주변을 탐문하니 김현수 위원장은 학창시절 나름 동네(포항)에서 꽃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로부터 사귀고 싶다는 연애편지를 수도 없이 받았고, 휴대폰이 없던 시절 집으로 전화가 많이 와 부모가 전화번호를 세 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잘생긴 똘똘이 스머프가 스포츠 분야 최고의 인권투사가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2022년 인권위에서 임기를 마친 후 그는 1년을 온전히 쉬었다고 합니다. 이후 대학강의, 인권 특강, 칼럼 연재, 관련기관 자문, 인권강사 양성, 저술 등 스포츠 인권 전문가로 활동했는데 2024년 체육시민연대의 집행위원장 제의를 받고 수락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유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체육계 최초의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2002년 설립)라면 할 일이 있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거 집행위원장님들은 대부분 교수 출신이라 체육계의 구조적 부조리를 포착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저는 교수 출신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관리자 경험이 있어 직접적으로 국회, 언론, 관련 부처와 협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올해 체육시민연대가 ‘역대급’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것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 집행위원장은 향후 활동이 더 기대되는 체육계 인사입니다. 그런데 교수직을 내려놓았던 까닭에 먹고사는 문제가 우려됐습니다. 돈도 안 되는 일에 열중하면 집에서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하하 가족을 굶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잠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갈굼’을 당해도 당연하죠(웃음). 사업 수완이 좋은 아내 덕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집에서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오히려 제가 하고픈 일에 전념 할 수 있으니 저야 좋습니다."

주변을 탐문하니 김현수 위원장은 학창시절 나름 동네(포항)에서 꽃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여학생들로부터 사귀고 싶다는 연애편지를 수도 없이 받았고, 휴대폰이 없던 시절 집으로 전화가 많이 와 부모가 전화번호를 세 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잘생긴 똘똘이 스머프가 스포츠 분야 최고의 인권투사가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03

재정난에 멈춘 체육·문화시설'..'탈세종' 못막는 세종

TBC 전유진 기자

2025-11-18

사진=TJB 뉴스보도 캡처화면

【앵커멘트】

성장이 멈춘 세종시의 현실과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떠나는 인구를 붙잡을 여력조차 없는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난 문제를 짚어봅니다.

예산 부족으로 생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잇따라 멈춰 서면서 젊은 층의 탈세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차량들로 가득한 이곳.

겉보기엔 주차장이지만, 원래는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던 부지입니다.

세종 반곡동 공공체육시설 예정 부지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임시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전유진 / 기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새롬동 잔디광장도 마찬가집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부터 이 부지를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로 10년 넘게 방치되자 결국 지난해 임시 활용안으로 이렇게 임시 잔디광장이 들어섰습니다."

세종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매입을 미룬 금강휴양림은 지난 6월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03

휴양림 부지와 수목원은 충남도 소유로 자산가치가 약 3천억 원에 달하지만, 세종시가 인수할 여력이 없어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 조차 돈이 없어 지켜내지 못한 셈입니다.

생활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공공문화시설, 복지사업, 심지어 단순한 도로 수리조차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윤영상 /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사무처장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치고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을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민원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들어주지를 못해요. "

이같은 재정난의 배경에는 급격한 세수 감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개발이 활발하던 시기엔 취득세 덕분에 세종시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신규 택지 개발 중단 이후, 세수는 2021년 3,300억 원에서 2년만에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 인터뷰 : 장민주 / 세종시 정책기획관

"현재는 도시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세종시 주요 세입이었던 취득세,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세수는 감소하고 유지 관리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736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부채가 늘어날수록 새 사업을 시작할 여력은 줄어들고, 빚으로 버티는 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으려면 결국 ' 돈이 도는 도시'로 바뀌어야 하지만 지금의 세종시는 빈 부지와 멈춘 사업이 늘어가는 '정체된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2025 학교체육 대상 시상식…교육 현장 교사 격려

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2025-11-20 16:34

사진=스포츠조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학교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지도에 매진하는 교사를 격려하기 위한 2025 학교체육 대상 시상식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 시상식은 2016년 교육부, 학교체육진흥회, 스포츠조선이 제정해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0개교가 공모에 참가했다.

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특수체육교육, 여학생 축구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부문(개인 12, 단체 2)으로 나눠 공모작 심사를 거친 뒤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교사와 학교를 선정해 교육부장관상(7개) 및 주관단체장상(4개), 후원단체장상(3개)을 각각 수여했다.

체육수업 분야에서는 소유영 교사(천안일봉초)와 박양경 교사(외솔중)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정용주 교사(구미인덕초)와 김민철 교사(경기과학고)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교스포츠클럽 분야에서는 정진홍 교사(영만초)와 성강해 교사(아산배방중)가 대상을 받았고, 문준기 교사(성연초)와 이휘재 교사(선주고)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유정현 교사(신광중)와 박태준 교사(상문고)가 각각 대상, 최우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특수체육교육 분야에서는 이한숙 교사(문흥초)와 소대영 교사(대구이룸고)에게 각각 통합, 특수 부문 대상이 돌아갔다.

여학생 축구 활성화 분야에서는 침산초와 불로중이 각각 초등, 중등 부문 대상을 차지해 대한축구협회장상을 받았다.

각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주관·후원단체장상 및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05

체육학 연구비 1%의 뒷, K-스포츠 과학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급하다

조선일보 최관용 한국체육학회장

2025-11-20 16:34

사진=최관용 한국체육학회장

한국은 올림픽 메달 순위권에 드는 스포츠 강국이지만 그 이면의 체육학 연구 환경은 구조적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대다수가 이공계(STEM) 분야에 압도적으로 편중된 현재 상황에서 체육학은 인문사회 및 예술 분야와 함께 1% 내외의 작은 몫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갇혀 있다.

그러나 체육학은 단순히 경기력 향상에만 기여하는 학문이 아니다. 운동 과학은 만성질환 예방, 노인 건강 관리, 아동 발달 지원 등 국민 삶 전반과 직결되며, 이는 국가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축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체육학 연구비 부족은 단순히 학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치명적인 제약 요인이 된다. 지금이야말로 체육학을 '전략적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고,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체육학 연구비 수주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1%의 뒷에서 비롯된다. 국가 R&D 예산이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기술에 수십조원 단위로 집중되면서 공학 분야가 전체 대학 연구비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동안,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에서 체육학이 속한 예술·체육학 분야는 여전히 1% 안팎에 머무는 극심한 자금편중을 겪고 있다.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내에서 체육 분야 증액률은 1.8%에 불과해 콘텐츠·관광 분야의 10.7% 증액과 대비되며 이는 총 예산의 약 0.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체육학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낮은 예산 비중은 고가 장비가 필수적인 스포츠 과학 연구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결국 많은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기초 연구보다 단기 정책 과제나 소규모 산업화 연구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학문적 토대가 약화되고, 스포츠 산업을 지탱할 지식 기반이 고갈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체육학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 성격에 따른 지원 주체의 분리와 예산을 증액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트랙은 한국연구재단(NRF)의 역할 강화이다. NRF는 체육학의 기초 연구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현행 인문사회 분야 내에서 '예술·체육학'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배정 비율을 의무화하거나, 아예 별도의 융합 과학 연구 분야 트랙을 신설하여 체육학이 인문학/사회과학 연구비와 경쟁하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과학 특성화 연구소 및 센터의 고가 핵심 연구 장비 구축 비용을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연구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트랙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투자 확대이다. 이들은 체육학 연구의 실용화와 산업 응용을 담당해야 한다. 스포츠 R&D를 문화예술지원이 아닌 산업 R&D의 관점에서 재편해 대규모로 증액하고, 지원 과제를 체육학 기반 학제 간 융합 컨소시엄 형태로 설계하여 체육학 연구자가 산업 수요에 맞는 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체육학 연구는 올림픽 메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이는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편익,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스포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국가적 효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미래투자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체육학을 더 이상 1%의 뒷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기초 연구 기반 확립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한 산업 및 정책 환원이라는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

K-컬처, K-반도체에 이어 K-스포츠 과학이 세계를 선도할 때, 한국은 단순한 스포츠 강국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글로벌 스포츠 과학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정책적 결단의 순간이다. 최관용 한국체육학회장(한체대 교수)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